

타율 0.476 '1위'...출루율 0.492 '1위'...최다 안타 '2위'...OPS 1.048 '4위'

가을야구 '키맨' 이창진, 7월 MVP 경쟁



KBO, 폰트·피렐라·나성범 등 7월 MVP 후보 6명 발표

7월 한 달 뜨거운 방망이를 선보이며 KIA 타이거즈 가을야구 '키맨'으로 부상한 이창진이 7월 월간 MVP후보에 선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일 지난 7월 뛰어난 활약을 펼친 월터 폰트(SSG), 예프리 라미네즈(한화), 호세 피렐라(삼성), 채은성(LG), 나성범·이창진(이상 KIA) 등 6명의 선수를 월간 최우수선수(MVP) 후보로 선정, 발표했다.

KIA 이창진은 7월 한 달간 팀의 테이블 세터진으로서의 몫을 충실하게 소화해냈다.

주로 상위 타선에 배치된 이창진은 2번 중에 1번꼴로 베이스를 밟으며 리그에서 가장 높은 출루율(0.492)을 기록했다.

또한, 뛰어난 킥백 능력으로 무려 0.476(1위)의 타율을 기록했고, 최다 안타 2위(30개), OPS 4위(1.048)에 오르는 등 팀의 공격 첨병 역할을 하

며 타선의 물꼬를 텄다.

KIA 나성범은 팀의 중심 타자로서 활약이 빛났다. 나성범은 찬스에 강한 모습을 보이며 20타점으로 해당 부문 1위에 올랐다. 장타율(0.671, 2위)과 출루율(0.458, 5위)을 합친 OPS는 1.129로 채은성에 근소한 차로 뒤진 2위를 기록했다.

나성범은 지난달 29일 광주 SSG 전에서는 홈런 2개를 포함해 7타점을 수확하며 개인 한 경기 최다 타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MVP 후보에 오른 폰트는 7월 총 5경기에서 선발 등판, 33이닝을 투구하며 최다 승인 4승(공동 1위)을 올렸다.

폰트는 시즌 성적에서도 승리 1위(13승), 평균자책점 2위(2.07), 탈삼진 3위(124개), 승률 4위(0.765) 등 고루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6월 중순 한화에 합류한 라미네즈는 7월 한 달간 4경기에서 1승을 거두는데 그쳤지만, 전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QS)를 달성했다.

25이닝을 던지면서 단 2자책점을

을 허용해, 리그에서 유일하게 0점대 평균자책점인 0.72를 기록하며 해당 부문 1위에 올랐다.

삼성 피렐라는 7월 삼성이 기록한 15개의 홈런 중 40%에 해당하는 6개의 홈런을 때리며 홈런 공동 1위에 올랐다. 타석에서 치고, 달리고, 불러들이며 31개의 안타(1위), 21득점(1위), 17타점(공동 3위)을 기록했다.

LG 4번 타자 채은성은 홈런 5개를 앞세워 장타율 0.710, OPS 1.145로 리그 1위에 올랐다.

7월 MVP는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솔)'에서 실시하는 팬 투표 결과가 합산된 최종 점수로 선정된다.

팬 투표는 오는 6일까지 진행되며 8일 결과가 공개된다.

월간 MVP에 뽑힌 선수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75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를 부상으로 주고, 신한은행 후원으로 출신 중학교에 해당 선수 명의로 1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된다.

/박희중 기자



2일 열린 '위더스제약 2022 민속씨름 보은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105kg이하)에 등극한 오창록(영암군민속씨름단)이 장사 꽃가마를 타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영암군민속씨름단 오창록 통산 12번째 한라장사 등극

팀 동료 차민수 제압

오창록(28·영암군민속씨름단)이 '위더스제약 2022 민속씨름 보은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105kg 이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오창록은 2일 충북 보은군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한라장사 결정전(5전 3승제)에서 같은 팀 동료 차민수(21)를 3-1로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오창록은 개인 통산 12번째 장사 꽃가마에 오르며 한라급 강자다운 면모를 뽐냈다. 올해에는 1월 설날 대회에 이어 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16강에서 우승 후보 중 한 명인 '베터링' 김보경(연수구청)을 2-1로 물리친 오창록은 8강 상대인 황재원(태안군청), 4강에서 만난 곽수훈(영암군민속씨름단)에게 한 점도 내주지 않고 거침없이 승리를 따냈다.

주목기인 들매지기로 황재원과 곽수훈을 모두 제압한 오창록은 결승 첫판에서도 들매지기로 차민수를 쓰러뜨리며 1-0으로 앞서나갔다.

두 번째 판에서는 차민수가 반격에 성공해 균형을 맞췄으나, 뒤이어 오창록이 들매지기로 내리 두 점을 따내 우승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메이저 퀸' 전인지 '커리어 그랜드 슬램' 정조준



지난 6월27일 열린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후 한하게 미소짓는 전인지. /USA TODAY Sports=연합뉴스

세계 정상급 스타 총출동...AIG 여자오픈 4일 개막

고진영·김효주도 시즌 마지막 메이저 타이틀 사냥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오픈(총상금 680만 달러)이 4일부터 나흘간 영국 스코틀랜드 이스트로디언의 뮤어필드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1위 고진영(27)을 비롯해 올해 앞서 열린 네 차례 메이저 대회 우승자들인 제니퍼 켈츠(미국), 이민지(호주), 전인지(28), 브룩 헨더슨(캐나다)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한다.

한국 선수로는 고진영, 전인지 외에 최근 LPGA 투어 2개 대회 연속 3위로 호조를 보인 김효주(27)와 2015년과 2017년 이 대회 우승자 박인비(34), 김민경(34) 등이 출전한다.

또 LPGA 투어 올해 신인 최혜진(23), 안나린(26)과 메이저 우승 경력이 있는 김세영(29), 박성현(29) 등이 나온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홍정민(20)도 메이저 대회

에 도전장을 던졌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는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가 우승했다.

2019년 예비양 챔피언십 이후 3년 만에 메이저 3승째에 도전하는 고진영은 올해 예비양 챔피언십 공동 8위에 올랐으나 지난주 스코틀랜드 여자오픈에서는 공동 7위로 추축했다.

AIG 여자오픈에서는 2015년 준우승, 2019년 3위 등 좋은 성적을 내왔다.

올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메이저 퀸' 전인지는 이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5대 메이저 가운데 4개 대회 정상에 오르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다.

전인지는 2015년 US여자오픈, 2016년 예비양 챔피언십, 올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을 제패했고 세브론 챔피언십이나 AIG 여자오픈에서는 아직 우승하지 못했다.

전인지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는 컷 탈락했지만 2020년에는 공동 7위를 했

다.

신인왕 경쟁 중인 최혜진도 이번 대회 좋은 성적이 필요하다.

현재 신인상 포인트 부문 1위는 아타야 티피쿰(태국)의 952점, 최혜진은 891점으로 2위다.

티피쿰과 최혜진의 '양강 구도'였던 신인상 경쟁은 지난주 스코틀랜드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후루에 아야카(일본)가 3위(485점)로 올라서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신인상 부문 4위(327점) 시부노 히나코(일본)는 2019년 이 대회 우승자이기도 하다.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면 신인상 포인트 300점을 받기 때문에 후루에나 시부노 역시 아직 신인상 도전을 포기하기는 이르다.

대회 장소인 뮤어필드는 남자 메이저 대회인 디오픈이 열리는 명문 코스다.

해안에 위치한 링크스 코스로 최근 2013년 디오픈을 개최했으며 여자 브리티시오픈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1744년 개장한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이 원래 270년 넘게 남성 회원들만 받다가 2017년에야 여성 회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연합뉴스

남부대 김민수·박지원 '金 총성'

문체부장관기 전국사격대회

남부대 김민수와 박지원이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사격대회에서 '금빛 과녁'을 명중시켰다.

김민수는 지난달 27일부터 5일간 전북 임실 전북종합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대학부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250.1점을 쏘 2위 임호진(한국체대)과 3위 경원빈(한일장신대)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열린 스탠다드 권총 개인전에서는 동메달을 추가했다.

김민수는 1학년임에도 흔들림 없는 집중력이 강점으로 오는 10월 전국체전에서도 다관왕이 기대되는 광주 사격 주역으로 꼽히고 있다.

50m 3자세 화약소총 개인전에 출전한 박지원(남부대 4년)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지원은 394.4점을 기록하며 정한결, 전상현(이상 한국체대)을 꺾고 정상에 올랐다.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사격대회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김민수(왼쪽)와 박지원.

25m 권총 개인전에 출전한 김예슬(남부대 1년)도 동메달을 따내며 메달을 추가했다.

한편, 광주체고 최대한·황의혁·이상혁·김건은 고등부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1천867.2점을 쏘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박희중 기자



제60회 대통령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한 순천시청팀(왼쪽부터) 장인성, 이하늘, 김만열, 강해준, 진희성, 추문수, 이민식. <전남도체육회 제공>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 혼합복식 우승

대통령기, 단체전은 준우승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팀(이하 순천시청)이 제60회 대통령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선전을 펼쳤다.

순천시청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안성에서 막을 내린 제60회 대통령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혼합복식 우승과 함께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순천시청 이하늘은 일반부 혼합복식 결승에서 고은지(육천군청)와 팀을 이뤄 장인성(순천시청)-김연화(안성시청)조를 상대로 접전 끝에 5대4로 승리

하며 우승했다.

같은 팀 장인성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단체전 준결승전에서 달성군청을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꺾고 결승에 오른 순천시청은 강호 수원시청과 맞대결에서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김백수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 감독은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에 매진한 결과인 것 같다"며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를 잘 준비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제15회 학교스포츠클럽 연식야구대회에서 중등부와 고등부 우승을 차지한 장덕중(왼쪽), 광덕고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장덕중·광덕고, 학교스포츠클럽 연식야구 우승

전국 연식야구대회 광주 대표

장덕중과 광덕고가 지난달 31일 광산구 첨단야구장에서 막을 내린 제15회 학교스포츠클럽 연식야구대회에서 중등부와 고등부 우승을 차지했다.

학교스포츠클럽 연식야구대회는 일반학생이 참가하는 대회로 2019년까지 매년 치러졌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중단됐다 올해 재개됐다.

중등부는 13개 팀이 참가해 조별리그(4조)로 치러졌으며 고등부는 4개 팀이

참가했다.

장덕중은 광주중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전남중과 월계중을 각각 3대1, 7대0으로 제압한 후 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산정중을 7대0 승리한 장덕중은 결승에서 신용중을 6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광덕고는 송의고를 4대0, 석산고를 5대0, 운남고를 3대2로 꺾고 3승으로 결승에 올랐다. 광덕고는 결승에서 만난 송의과학기술고를 7대0으로 제압하며 정상을 차지했다.

우승팀 장덕중과 광덕고는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5회 학교스포츠클럽 전국연식야구대회 광주 대표로 출전한다.

/박희중 기자